

청소년 금연, 기성세대의 의무

97년 5월 당시 대구에 있는 성서공업고등학교의 이윤재 선생님(현, 서부공고 교사)은 작년 5월부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해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교육을 적극 전개한 바 있으며,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와 금연방안에 대하여 다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흡연하는 학생이 없는 대구 성서공고를 위하여

고등학생 4명중 3명 정도가 “흡연경험이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이제 학생 금연지도는 고등학교 생활지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실업계학교의 학생 흡연율은 일반계 고교보다 높은 편이며 흡연의 제반 문제점과 상황 역시 그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보면 피우지 못하게 권유도 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도하여 보았지만 몇몇 교사만의 힘만으로는 지도에 한계를 느꼈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담배를 끊게 할 수 있을까?”가 대구 성서공고 이윤재 학생주임 교사의 숙제 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흡연하는 학생이 없는 성서공고”라는 모토로 금연지도를 강력하게 실시하게 된다.

금연지도, 다각적으로, 꾸준히, 철저히

신학기가 시작된 후 1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전교생 소지품 검사를 펼쳐 담배와 라이터를 압수하였고 3월에서 5월 동안 압수한 양이 담배 710갑, 라이터 2,250개로서 생각보다 매우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금연교육이나 훈계 또는 위반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재로는 흡연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나 규제만 가지고는 금연지도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깨닫고 끊을 수 있는 정신적인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학교 자체 금연교실을 연다.

또한 금연서약서와 금연교실 수료증을 만들어 주어 금연의지를 가지도록 해준다.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는 그러한 노력들로도 금연을 완전 실천하는 학생의 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금연지도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꾸

준하게" 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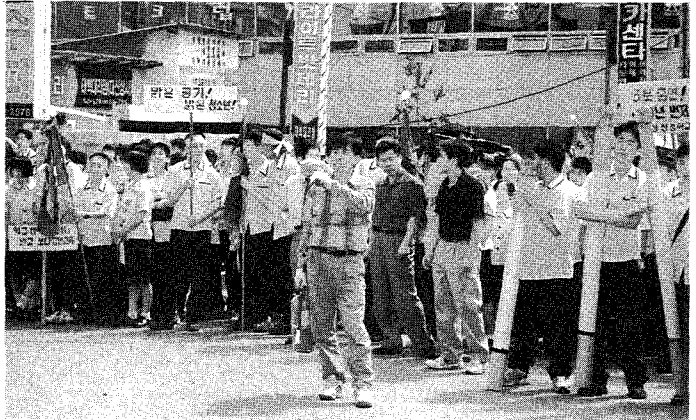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서공고의 경우 1학년 학생중 43%, 2학년 56%, 3학년 70%로, 평균 56%의 흡연율을 보였으며 금연교실 후의 변화

는 흡연량을 줄이고 있다 48%, 흡연량이 변화가 없다 46%, 흡연량이 더 많아졌다 3%, 담배를 끊게 됐다 2%로써(설문조사. 97. 5) 금연지도는 지속적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 학교의 노력과 함께 사회에서의 흡연에 대한 인식과 금연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덧붙여 학생들의 금연지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흡연의 유해성을 절감하고 금연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금연교실을 개최했다. 교무실 등 학생들이 보는 곳에서는 흡연을 금하는 등 금연지도에 선생님들이 협조하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보여졌다.

청소년 금연 기성세대의 의무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과 건강한 정신을 갖게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장기적인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성인병과 암 등의 질병으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가일로에 있는 청소년 흡연에 중독이 심해지기 전에 금연으로 이끄는 일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본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용인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내용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도 자녀들과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함부로 피우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할 것이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흡연자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하는 것은 담배가 마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피운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흡연단속에 많은 고통은 따르지만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만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卍/서정원